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도약을 위한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김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55
----------	-------

제출년월일: 2026. 9. 4.

발 의 자: 김진숙, 한명훈, 윤오일, 김재국
이진분, 백승희, 염정우, 설호영
천복희, 김태성, 선현우, 박은정
윤성영, 이상우, 이재복, 안두희
현옥순, 최찬규, 유민희
의원(19인)

1. 주문

-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건의함.

2. 제안이유

- 수도권 서남부의 기존 철도망은 남북축 중심으로 구축되어 동서축 철도 인프라 부재로 수원·의왕·군포·안산 시민과 기업들은 이동의 불편과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음.
-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은 광교역에서 수원·의왕·군포를 거쳐 안산 반월역까지 총연장 14.54km에 이르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광역 교통 수요 대응과 수도권 서남부 동서축 연결을 위한 필수 인프라임.

- 지역 정치권과 경기 서남부 4개 지자체,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토교통부가 2026년 하반기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및 고시를 앞두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조를 바탕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후속 행정 지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참고자료: 붙임
- 송 부 처: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도약을 위한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수도권 서남부의 기존 철도망은 남북축 중심으로 구축되어, 수원·의왕·군포·안산 등 경기 서남부에 거주하는 시민과 기업 종사자는 동서 간 이동에 오랜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광역철도 인프라의 불균형은 지역 간 이동 편의 저하와 산업 발전의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안산시는 동서축 철도 인프라 부족으로 도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도 동서 철도망 확충이 절실한 시점이다.

‘신분당선(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사업’은 광교역에서 수원, 의왕, 군포를 거쳐 안산 반월역까지 총연장 14.54km에 정거장 7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1조 6천억 원이 소요되며 반월역은 수도권 전철 4호선과 환승 연계된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동서 광역철도축이 구축되고 신분당선과의 직결로 강남·광교 접근성이 향상되며, 반월역세권과 안산 동부 지역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수원·의왕·군포·안산 4개 도시의 생활권 통합뿐만 아니라 R&D·바이오·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연계 및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단순 경제성 수치만으로 판단할 사업이 아니다. 현재 안산시는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한 AI, 로봇 등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성패는 우수한 기업 유치와 청년 인재의 유입에 달려있다.

아무리 좋은 산업 인프라를 갖추어도 인재가 모이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 성공은 불가능하며, 신분당선 연장선이야말로 우수 인재를 안산의 혁신 산업 현장으로 이끌 핵심 열쇠이다.

국가철도망 노선 반영 여부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광역교통 수요 대응, 국가균형발전, 산업 전환 등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업은 2022년 군포시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4년 안산시와 군포시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 시행 계획 사업 건의, 2026년 7월 지역 국회의원·도의원·주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2026년 8월에 수원·의왕·군포·안산 4개 지자체가 공동 건의문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송부하였다.

이처럼 이 사업은 4개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아직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반기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공청회와 고시를 앞두고 있어 지금이 계획 반영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다. 이 계획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난이 그대로 방치되고,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지역의 그간 노력도 동력을 잃을 우려가 크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안산시 경제자유구역의 도약과 경기 서남부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즉각 반영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노선 반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제성뿐만
아니라 광역교통 수요, 국가균형발전,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

하나, 경기도는 경기 서남부 4개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분당선 연장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이행하라!

2026. 9. 10.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